

# “생각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는다면 바른 생각 돼”

## <18> 심성론(心性論)의 불(佛)·유(儒) 회통론과 거시들(2)

심성론에 있어 불교와 유가 사상을 결합시킨 양숙(梁肅) 거사의 '복성명정론(復性明靜論)'을 계승해 보다 발전시킨 사람은 이고(李翱) 거시이다. 이고(772-841) 거사는 <복성서(復性書)>를 지어 유명하다. <복성서>에는 유불회통(儒佛會通) 사상이 매우 농후해 그의 스승이며 철저한 배불론자인 한유(韓愈)의 한탄을 자아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다.

이고 거시는 자(字)가 습지(習之)이며, 통서(通西; 현재 甘肅省 渭源)사람이다. 거시는 학생시절인 정원(貞元) 9년(793) 9월 주부(州附)에서 공거인사(貢舉人)로 지방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행사를 시행할 때 양숙 거사와 첫 대면을 했다. 양숙 거사는 이고에 대해 '서로 통하는 도가 있다'고 평가해 가르침을 주지만, 아쉽게도 그해 11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만다. 그러나 2-3개월 짧은 기간 동안 사상은 이고 거시에게 스승인 한유보다도 더욱 깊은 영향을 줬다. 그 후 거시는 양숙 거사를 추모해 <감지기부(感知己賦)>를 지었다. 이후 정원 14년(798), 이고 거시는 과거를 통해 벼슬길에 올랐고, 남주(南州)자사, 예부랑중, 형부시랑 등의 고관을 역임했다.

내부로 들어간다면 어렵지 않게 이 책의 사상 및 표현방식이 불교의 불성론(佛性論)과 상당히 접근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성서>의 귀결점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인(聖人)을 이루는가를 가르치는데 있다. 거시는 "인간이 성인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성품이 있기 때문"이라 말했다. 그러나 '성품'은 결코 성인만이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중생이 모두 지니고 있는 것이다. 성인과 범부의 구별은 성품이 있고 없음이 아니다. 성인은 천명(天命)의 성(性)을 얻음에 있고, 정에 끌리지 않고, 범부는 그와 반대로 정에 빠져서 그 근본을 알지 못해 끝내 그 성품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 이는 마치 물의 성품은 항상 맑지만 모래와 진흙 등으로 오염돼 혼탁해지는 것과 같다. 만약 "모래가 혼탁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흐름은 맑을 것"이라고도 말한다. 성인도 바로 그와 같아 정에 미혹되지 않는 그들은 성품이 항상 청명하다고 한다. 어떻게 정에 미혹되지 않는가에 대해 거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불사불려(佛思弗慮)'를 제시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이 흠미하기가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그



앉을 때는 산꼭대기 가장 높은 곳에 앉고, 행할 때는 바다 속 깊이 밀바닥에서 행하십시오. 침실 속의 물건을 버리지 않으면 바로 새어 나옵니다"라고 설명했다. 선사가 밤에 산을 올라 경행(經行)하다가 홀연히 구름을 헤치고 나타난 달을 보며 크게 웃으니, 예양(禮陽)의 동쪽 구실 리까지 울려 퍼졌다. 다음날 아침 사람들이 선사에게 찾아와 물으니, 거사가 옆에 있다가 "그윽이 머물 곳을 골라 얻었으니 들에서 당신(仰山유업) 뜻에 맞으니, 평생토록 사람이와도 맞이하고 전승하는 법이 없는데, 어느 때는 외로운 봉우리 꼭대기에서, 달 아래 구름을 헤치고 한번 크게 웃는다"라는 시를 읊었다.

<전등록>에 보이는 이 일화로부터 약산 선사는 이미 거시의 깨달음을 인가하고 있음이 짐작된다. 거사와 관련된 기록에 따르면, 당주(唐州)의 자옥(紫玉) 선사, 서당지장(西堂智藏) 선사, 아호대의(鰲湖大義) 선사 등 동시대의 여러 뛰어난 선사들과 밀접한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복성서>에 보이는 '성품의 회복'이란 논리가 선종의 '명심견성(明心見性)'의 논리와 유사한 원인이 드러난다. 또한 이러한 거시의 반연은 유불회통론에 있어 그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양숙 거사와 다른 측면이 나타나게 했다.

양숙 거시는 형제 대대로부터 천태학을 배웠던 까닭에 천태학을 중심으로 유가와 회통을 이뤘지만, 이고 거시는 선종의 선사들과 인연이 깊어 선종 선리(禪理)를 중심으로 유가와의 회통을 제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거시의 사상을 후대에 성리학(性理學)을 집대성한 주희(朱熹)는 <주자어류(朱子語類)>에서 "다만 불교로부터 나온 것" "지극한 도리를 설하지만, 불교와 유사할 뿐"이라 비판했다.

그런데 이렇게 선의 깨달음을 증득하고 불교에 심취했던 이고 거시는 당시 불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다. 남북조시대부터 출현한 재회(齋會)가 당대에 와서는 점차 화려하고 성대해짐이 최고조에 달했고, 또한 이로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안사(安史)의 난(755-763) 이후 국가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러한 재회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이고 거시는 불교의 재회를 없애자는 의미의 <거불제(去佛齋)>를 찬술해 재회의 폐단을 비판했다. 이 저술을 세밀히 분석하면, 거시의 의도는 불교 본연의 율과 지나치게 복속을 탐하는 불교도 비판에 있지 불교 자체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

불교와 유가의 사상적 회통을 이룬 거시의 <복성서>는 이후 성리학을 비롯한 중국의 사상적 발전에 깊은 영향을 줬다. 또한 불교, 특히 선종에 있어서도 선리(禪理) 전개에 다양한 측면으로 영향을 끼쳐 <거사전> <불법금당론> <송고승전> 등에 외호거사로서 평가됐고, <전등록> <조정사원(祖庭事苑)> 등의 선종사서에 그의 전기와 사상이 실렸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 이고 거사 대표작 '복성서'서 유불회통 잘 드러나 '복성서' '성품회복' 논리 선종 '명심견성'과 유사

태화(太和) 9년(835)에 양주(襄州)자사 및 산남동도절도사(山南東道節度使)에 임명됐고, 그 임지인 양주에서 생애를 마쳤다. 거시는 필명 7명 두었고, 외손(外孫)대에서 재상을 3명 배출했다.

이고 거사의 유불회통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대표작 <복성서>이다. <복성서>는 모두 세 편으로 구성됐다. 상편은 성정(性情) 및 성인(聖人)에 대한 총론이고, 중편은 수양하여 성인(聖人)에 이르는 방법을 평론했고, 하편은 사람들에게 수양을 권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전편에 걸쳐 공맹(孔孟)의 도통(道統)을 회복할 것을 호소했고, <주역(周易)> <대학(大學)> <중용(中庸)> 등으로 주요 전거를 삼았다. 거시는 이 책에서 정(情)을 버리고 '성품을 회복(復性)'하는 것을 취지로 했고, '헤아리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佛思弗慮)' 정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복성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표면상으로 본다면 이 책은 유전(儒典)을 근거로 해 유가의 용어를 사용하며, 그 목적이 공맹의 도통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표면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깊이 사상

성품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점자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감히 그 방법을 묻겠습니다"라는 물음에 이고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생각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는다[佛思弗慮]면 정념(情念)은 생하지 않는다. 정(情)이 생하지 않으면 바른 생각이 된다. 바른 생각이 생기면 헤아림이 없음을 아는 것이 제계(齊戒)이다. 본래 헤아림이 없음을 알아 움직임을 모두 여의어 적연부동(寂然不動)한 것이 지성(至誠)이다"라고 답했다. 또한 이러한 '지성'은 바로 인간의 성품을 다할 뿐 아니라 사물의 성품도 다하고 있어, "천지의 생성 발육을 도우며, 천지와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로부터 <복성서>의 사상은 선종(禪宗)의 '이념(離念)' '무념(無念)' 나아가 '무상(無相)'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송(宋)의 석실조수(石室祖秀) 선사는 <용흥불교편년통론(隆興佛敎編年通論)> 권2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복성서>를 배우는 것은 불경의 개요를 얻는 것이

다. 다만 문자를 달리 했을 뿐"이라 말했다.

이고 거사의 사상에 불교가 깊게 스며들었던 원인은 양숙 거사와의 인연뿐 아니라 다양한 선사(禪師)들과의 인연에서 찾을 수 있다. 그 가운데 <경덕전등록(景徳傳燈錄)> 권4는 거사가 남주자사로 있을 때 약산유업(藥山惟嚴) 선사를 친견해 오묘한 내용을 상세하게 전한다.

거사가 유업 선사를 처음 만났을 때, 선사는 경정을 보며 못 본 체 하자, 거시는 "직접 대해 보니 소문에 듣기보다 못하다"며 떠나려 했다. 그때 선사는 "태수는 어찌 귀만 귀하게 여기고 눈은 천하게 여깁니까?"라고 반문하자 거시는 합장하며 "도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선사는 손으로 위와 아래를

가리키며, "알겠습니까?"라고 묻자 거시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선사가 "구름은 푸른 하늘에 있고 물은 병에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거사는 크게 깨닫고는 계승을 하나 읊었다.

"몸을 단련해 마치 학의 형상과 같고, 천 구루의 소나무 아래 두 함의 경전을 두고 있네. 내가 와서 도를 물으니 아무런 말이 없고,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병에 있다 하네."

계승을 마치고, 거시는 다시 선사에게 "어떤 것이 계정해(三學)입니까?"라고 묻자 선사는 "빈도(貧道)의 이 처소에는 한가한 살림살이가 없습니다"라고 답하니 거사가 헤아리지 못했다.

선사는 "태수는 이 일을 잘 보임(保任)하십시오.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졸	공무원	서울 서초구
임용우	1966년생	174	고졸	자영업	서울 영등포구
노해웅	1972년생	173	고졸	CEO	충청북도 천안시
이준우	1964년생	168	고졸	회사원	대구 동구
김현태	1957년생	173	고졸	회사원	대구 미천구
조복재	1965년생	180	고졸	일반전문직	서울 서초구
임태민	1981년생	180	대졸	공무원	서울 서초구
김기엽	1969년생	180	전문대졸	자영업	서울 경기고양
홍보표	1967년생	180	전문대졸	회사원	경기시흥
최명길	1974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기부천
오상택	1965년생	165	고졸	회사원	전주 서구
한용석	1975년생	167	고졸	회사원	충북영동
최경복	1971년생	174	고졸	회사원	대전 대덕구
이정배	1966년생	172	고졸	회사원	대전 대덕구
임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졸	회사원	대전 대덕구
이영근	1976년생	165	대졸	회사원	대전 대덕구
김대중	1974년생	173	대졸	회사원	경기용인
정화섭	1960년생	175	대졸	공무원	경기이천
이동희	1972년생	180	대졸	회사원	경북예천
강정복	1965년생	170	고졸	자영업	인천 천안시
정지영	1974년생	174	중졸	회사원	수원 구리구
임인갑	1974년생	165	고졸	회사원	강원태백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졸	금융직	경기안양
김중희	1963년생	163	고졸	회사원	서울 강원대백
이영일	1965년생	165	대졸	회사원	경기안양
박종우	1972년생	175	고졸	회사원	서울 서울
최용상	1970년생	170	방통대졸	공무원	서울 서울
이동원	1970년생	172	대졸	회사원	서울 서울
남정대	1971년생	173	고졸	회사원	경기구미
유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졸	회사원	충북옥천
박이수	1960년생	168	중졸	회사원	경기수원
배영순	1956년생	150	대졸	자영업	경기화성
오상택	1970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기부천
변희섭	1965년생	174	고졸	회사원	경기구미
김대환	1973년생	172	대졸	회사원	광주광역시
김정영	1970년생	163	대졸	복지사	충주시
변진석	1967년생	170	고졸	회사원	고양시
홍진석	1968년생	167	대졸	회사원	서산시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사원	서울 서울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배병인	1967년생	169	대졸	회사원	부산 서구
전남진	1972년생	172	전문대	회사원	서울 광주시
이규안	1970년생	165	대졸	건설사	서울 서울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	자영업	경기도
권순석	1978년생	171	대졸	건설사	전주시
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	영업	전주시
문윤중	1970년생	163	고졸	영업	광주시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공무원	대전 서구
민익식	1969년생	172	고졸	회사원	부산 서구
최정우	1978년생	178	대졸	건설사	서울 서울
노금광	1972년생	162	고졸	회사원	전해시
정영준	1959년생	165	고졸	공무원	충남 공주시
오세준	1975년생	175	고졸	회사원	경기도
박헌득	1964년생	163	고졸	회사원	서울 서울
임상훈	1973년생	172	대졸	회사원	경기도
연길호	1973년생	175	대재학	공무원	경기도
박성준	1965년생	169	고졸	회사원	대구시
박준우	1971년생	170	대졸	건설사	대전 서구
최용우	1962년생	164	고졸	자영업	충청남도 홍성군
조현욱	1972년생	166	고졸	조리사	경기도
김진욱	1969년생	170	고졸	공무원	충북 충주시
김재원	1966년생	175	고졸	회사원	대구 구
서중은	1971년생	170	고졸	회사원	경기도
이건우	1971년생	173	대졸	자영업	충주시
박진수	1975년생	160	전문대	발전공사	강원도
모용우	1973년생	177	대학원	교육직	경기도
박대식	1974년생	175	대학원	영업	충남 충주시
최병익	1974년생	176	고졸	회사원	서울 서울
김진혁	1964년생	160	고졸	회사원	경기도
정지민	1970년생	162	고졸	회사원	대전 서구
정일주	1967년생	165	고졸	회사원	서울 서울
박선준	1974년생	175	대학원	농사	인천 북구
진인덕	1965년생	157	대학원	회사원	경기도
연태현	1973년생	182	고졸	회사원	서울 서울
전홍배	1979년생	170	대졸	자영업	대전 서구
박정은	1972년생	168	대졸	회사원	충북 충주시
강충남	1973년생	160	고졸	회사원	충북 충주시
손종현	1971년생	172	고졸	회사원	경기도
김대수	1973년생	170	대졸	교육직	서울 서울

현대불교신문 구독자 인연찾아주기

## "아름다운 인연 찾기" 공개 구혼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장천석	1967년생	175	고졸	회사원	서울 서울
안상기	1966년생	185	고졸	공무원	충북 북부
정우철	1974년생	175	대졸	회사원	경기도
김윤구	1979년생	170	대졸	회사원	경기도
정효승	1975년생	170	대졸	회사원	대전 서구
유준호	1971년생	176	대졸	회사원	충남 서구
왕현민	1973년생	179	대학교	대기업	충남 서구
박대현	1977년생	168	고졸	회사원	충남 서구
박병진	1975년생	182	고졸	공무원	충남 서구
한건홍	1973년생	170	전문대	건축사	충남 서구
민상규	1973년생	171	대학교	환	충남 서구
양명진	1955년생	170	고졸	회사원	충남 서구
이윤철	1967년생	165	고졸	회사원	충남 서구
고종욱	1974년생	167	대학교	회사원	충남 서구
안태영	1975년생	170	대학교	회사원	충남 서구
박진풍	1969년생	162	대학교	학원강사	충남 서구
배중우	1971년생	170	전문대	자영업	충남 서구
김상기	1975년생	170	고졸	조리사	충남 서구
이종호	1970년생	163	고졸	회사원	충남 서구
오진철	1974년생	170	대졸	회사원	충남 서구
이상경	1974년생	173	대학교	회사원	충남 서구
최영철	1966년생	160	전문대	회사원	충남 서구
전선도	1964년생	158	대학교	치과원장	충남 서구
유창식	1974년생	165	대학교	약사	충남 서구
전보우	1971년생	173	대학교	금융	충남 서구
차준학	1972년생	171	대학교	철도공사	충남 서구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님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성사 주지 혜철**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스님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297-4 대성사

전화 | 043)732-5560  
010-9422-8453

팩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